

튀르키예의 한국학 현황과 과제*

-이스탄불대학을 중심으로-

정은경**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II. 튀르키예 한국학과 및 연구동향
- III. 튀르키예 한국학 현황
- IV. 이스탄불대학의 한국학 현황
- V. 튀르키예 한국학의 과제와 발전방안을 위한 제언
- VI. 나오는 말

I. 들어가는 말

1949년 8월 튀르키예가 신생 대한민국을 독립국가로 인정하면서 시작된 양국의 관계는 튀르키예의 한국전 참전을 통해 특별한 유대를 형성했으며

* 이 논문은 2022년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을 통해 해외한국학 씨앗형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AKS-2022-INC-2250002)

** 鄭恩硬 이스탄불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조교수 eunkyung.jeong@istanbul.edu.tr,
<https://orcid.org/0000-0003-3040-9619>

DOI URL: <http://dx.doi.org/10.17792/kcs.2023.45..211>

이후 1957년에 공식적인 외교 관계로 발전했다. 2012년에는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되어 현재 활발한 정치 및 경제 교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한국전쟁 최대 파병국가 중 하나인 튀르키예는 한국을 ‘칸카르데시(피로 맺어진 형제)’로 지칭하며 상당한 우호의식을 갖고 있다.¹⁾

최근에는 급속히 확대되는 한류의 영향으로 다양한 연령층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국에 대해 기본적인 우호의식을 지니고 있던 튀르키예인들에게 있어서 한류 열풍이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이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접하기 위해 한국문화원 및 세종학당, 사설 어학원으로 향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유럽시장 점유를 위한 교두보로서 튀르키예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인식한 한국 기업들(현대 자동차, 삼성, LG, 포스코, 효성, SK 등)이 현 튀르키예 지역 경제의 한 축을 형성해가고 있으며, 이들 기업은 친한(親韓)의식으로 인해 현지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장들 중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이스탄불 제3대교, 보스포러스 해저터널, 차낙칼레 대교 등 국가적 건설 사업들이 한국 기업에 의해 시행됨으로써 양국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한국의 국가적 위상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한국 경제와 한류의 성장은 튀르키예 내 한국어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한국학과의 발전과 경쟁력에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에서 한국학을 둘러싼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한국학의 동향이나 흐름에 대한 연구와 고민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처럼 보인다. 어쩌면 빠른 변화에 편승해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나 미래지향적인 방향 설정을 위한 여유도 없이 ‘오직 전진’을 외치며 달려온 것일지도 모른다. 튀르키예에서

1) 튀르키예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쟁 참전 16개국 중 전사자 수가 3번째로 많은 나라(966명)며 부상자와 전쟁포로 등 사상자 수가 가장 많은 네번 째 나라(2,365명)다. <https://www.mfa.gov.tr/turkiye-guney-kore-siyasi-iliskileri.tr.mfa/2023/11/27>

최초 한국 학과 설치 후 34년이라는 비교적 긴 시간의 과정이 있었지만 현지 한국학의 실제 규명과 방향 제시를 위한 관련 연구 결과물의 부족이 그 좋은 방증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가지고 본고에서는 튀르키예 대학 내에 한국어문학과가 설치된 세 대학 한국학과와의 현황을 조망하고 이스탄불대학 한국학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튀르키예 내 한국학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과 관련하여 교과과정에 대한 정보수집은 각 대학 홈페이지에 업로드 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학과들의 현황은 한국학과 교수진들과 인터뷰 및 그동안 필자가 교육 필드에서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음을 밝히는 바이다.

Ⅱ. 튀르키예 한국학과 설치 및 연구동향

그동안 튀르키예 내 한국에 대한 연구는 양국 관계의 변화를 따라 발전해 왔다. 현재 국립대학 세 곳에 한국어문학과가 정식으로 설치되어 한국학 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서울올림픽 이후 1989년 앙카라대학교에 한국어문학과가 개설된 것을 필두로 하여 올해 34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 준결승에서 확인된 양국의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2003년 튀르키예 중부 지방에 위치한 에르지예스대학교에 한국어문학과가 개설되었다.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양국의 경제 관계와 한류의 영향에 힘입어 이스탄불대학교에 한국어문학과가 개설되었다. (*이후 해당 3개 대학 한국어문학과는 편의상 한국학과로 지칭)²⁾

2) 튀르키예 대학 내 설치된 한국어문학과들 중 앙카라대학 한국어문학과는 언어, 역사, 지리학 단과대학 산하에, 에르지예스대학과 이스탄불대학은 동일하게 문과대학 내 동양어학부에 소속되어 있으며 강의 커리큘럼은 대학 행정과 인문학의 카테고리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상 학과에서 교수 인력과 자질에 맞춰서 자체적으로

이스탄불 문명대학에도 동양어학부 소속으로 한국어문학과가 설치되어 지난해부터 두 명의 전임강사들이 임용되었으며 정식 운영을 위한 준비 과정 중에 있다. 이 외에도 이스탄불에 위치한 보아지치대학교 및 아이든대학교, 예디테페대학교, 앙카라의 하제테페대학, 카이세리 메릭사 대학 등에서 한국어가 선택 교양 강좌로 개설되어 있으며 튀르키예 지방의 몇몇 대학들에서도 한국 관련학과 및 한국어 강좌 신설을 논의 중이다. 뿐만 아니라 사설 학원이 운영하는 한국어 강좌와 일부 지역의 시·구청에서 시민들의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한국어 무료 강좌도 진행되고 있다.³⁾ 또한 2011년부터 한국문화원 연계형으로 이스탄불 세종학당을 비롯해 앙카라, 이즈미르, 부르사 등의 지역에 세종학당이 설립되어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⁴⁾ 이에 더해 2017년에는 튀르키예 교육부에서 한국어를 고등학교의 제2외국어로 승인한 바 한국어학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튀르키예 내 한국어 교육 및 한국학의 현황이나 동향을 연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튀르키예 한국학의 양적 및 질적 성과와 해결방안 그리고 전망에 대한 소수의 연구 결과물들이 있다. 먼저 곡셀 투르코즈(2014) 5)가 “튀르키예에서 한국어 교육 및 한국어 학습자 유형 변화”에서 튀르키예 내 한국어학습자 유형 변화와 대학의 한국어 교육 변화를 연계해 한국학 교육의 실태를 분석했다. 유정숙(2018) 6)은 “튀르키예 대학에서의 한국문학

과정을 설계할 수 있다. 그러므로 편의상 본고에서는 큰 범위 내에서 한국학과라 지칭하기로 한다.

- 3) 현지 교육부 운영 한국어 강좌 내용 참조: <https://e-yaygin.meb.gov.tr/pagePrograms.aspx>
- 4) 이스탄불 세종학당은 2021년부터 이스탄불대학 언어교육원에 소속되어 현재 5명의 한국인 교원이 대학의 전임강사 자격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외국인 노동법 개정으로 한국인 교원들의 비자 수급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현재는 이스탄불 세종학당과 앙카라 세종학당을 제외한 두 지역의 세종학당은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황이다.
- 5) 곡셀 튀르코즈, 「튀르키예에서 한국어 교육 및 한국어 학습자의 유형 변화」, 『Journal of Korean Culture』 26, 2014, 63- 88쪽

교육 현황 및 교재 분석 - 튀르키예 에르지예스 대학교 <한국어문학과>를 중심으로”에서 튀르키예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한국문학 교육 상황과 발전 방향을 에르지예스 대학 한국어문학과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한국 문학 교재를 통해 고찰하였다. 또한 임지영은 “튀르키예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연구 동향 분석”(2021)⁷⁾에서 한국에서 출판된 튀르키예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 관련 연구물 분석을 통해 튀르키예 내 한국어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의 연구방향을 논의하였으며, 조은숙 (2019)⁸⁾은 “한국과 튀르키예에서의 한국학 관련 연구 동향”에서 한국과 튀르키예에서 출판된 한국학 관련 학위논문의 수와 내용들을 통해 질적인 면과 양적인 측면에서 양국의 한국학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조홍윤 (2020)⁹⁾은 “튀르키예 국립 이스탄불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수업 사례를 통한 고전문학 교육 방안 연구”에서 총 5학기에 걸쳐 이스탄불대학교 한국어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고전문학 교육 과정을 통해 튀르키예 내 한국고전문학교육의 성과를 위한 실제적인 방안과 개선점을 모색하였다.

한편으로 한국학 수용 인구가 증가하는 분위기를 감안해 튀르키예 현지 연구자들의 한국에 대한 연구동향도 살펴보았다. ¹⁰⁾ 학술논문 검색 사이트에서 튀르키예어로 한국을 뜻하는 ‘Kore’를 키워드로 대강하여 검색한 결과

-
- 6) 유정숙, Hatice Koroglu Turkozu, 「튀르키예 대학에서의 한국문학 교육 현황 및 교재 분석 - 튀르키예 에르지예스 대학교 <한국어문학과>를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 41, 2018, 63-92쪽
 - 7) 임지영, 「튀르키예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교육 연구 동향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 2021, 113-129
 - 8) 조은숙, 「한국과 튀르키예에서의 한국학 관련 연구 동향」, 『중앙 유라시아 지역 한국학의 현황과 비전』정은경, 손영은 Ed, Demavend, Istanbul, 2018, 45-63쪽
 - 9) 조홍윤, 「튀르키예 국립 이스탄불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수업 사례를 통한고전문학 교육 방안 연구」, 『한국고전연구학회』 48, 韓國古典研究, 2020, 243-272쪽
 - 10) 한국학 관련 현지 연구 동향 파악을 위하여 튀르키예 산업기술부 산하 학술네트워크 및 정보센터(ULAKBIM)의 학술지 콘텐츠 플랫폼인 데르기 파크(Dergi Park)을 통해 검색했다. <https://dergipark.org.tr/tr/>

논문 제목에 한국이라는 단어가 직접 들어가 있거나 본문에 한국 혹은 한국과 관련해 언급된 791편의 학술 소논문이 게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검색 사이트에서 한국학 연구의 시기별 양적 증가 양상을 뚜렷하게 볼 수 있었는데 2000년대 이전에는 매년 1편 정도인 학술 논문이 2010년대가 넘어가면서 의학, 문학,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법 및 한류 등 다양한 주제와 함께 논문 편수도 해마다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¹¹⁾

Ⅲ. 튀르키예 한국학 현황

현재 튀르키예에서 실제 한국학과를 운영 중인 세 대학 모두 국립대학 문과대학 내에 한국어문학과는 명칭 하에 전공과정으로 설치되어 있다. 그 외 몇몇 국립 및 사립 대학에서는 한국어 선택 교양 수업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한국학 교육의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전공과정으로 설치된 대학을 위주로 다루고자 한다.

(1) 앙카라대학 한국어문학과

1989년 튀르키예에서 처음 한국학 관련 학과를 공식적으로 시작한 앙카라 대학교 한국어문학과는 수도 앙카라에 위치해 있으며 앙카라대학 언어 및 역사 지리학 대학 산하에 설치되었다. 학과 개설 초기 교수진은 한국 학술진흥재단 파견교수 1 명과 튀르키예에서 석·박사 과정 중의 한국 유학생들 위주로 시작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한국어문학과에서 배출한

11) 현지 연구자들의 한국 관련 (혹은 본문에 한국어 언급된) 연구 결과물 관련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dergipark.org.tr/tr/search/33?q=Kore+§ion=articles/2023/11/20>

졸업생들 가운데 석사 학위를 취득한 졸업생과 한국국제교류재단 파견 교수들을 중심으로 강의를 운영하였다.

처음에 10명으로 시작한 학과 정원이 매년 늘어나서 현재는 각 학년마다 40명의 정원을 유지하고 있다. 대학원은 1995년에 대학원 석사과정이 개설됐으나 교수진 및 입학생 부재로 중단됐다가 2004년 재가동되었으며 2007년 부터는 박사과정을 운영 중이다. 교수진으로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이 학과 출신인 에르탄 곱켄 교수가 학과장이자 교수로 재직 중이며 튀르키예인 부교수 1명, 현지인 연구조교 2명, 현지인 전임강사 2명, 한국인 전임강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앙카라대학 한국어문학과는 튀르키예 내 한국학의 출발점이라는 의미와 함께 한국학의 성장을 위한 토대 구축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¹²⁾

튀르키예 대학시스템은 가을학기를 기준으로 신학기가 시작되며 튀르키예 고등교육위원회(YÖK)의 정책결정에 따라 볼로냐 프로세스에서 유럽대학의 통합과 교류를 위해 추진한 ECTS(European Credit Transfer System)를 적용하고 있다.¹³⁾ 이 시스템에 맞게 학점 및 시수를 정하였으며 전공필수, 교양필수 및 전공 외 선택과목 등으로 구분된다. 앙카라대학 한국어문학과에서 사용하는 교재는 연세대학교출판 한국어 교재와 Ertan Gokmen 교수와 김성주교수 공저로 출판된 “한국어문법”교재 그리고 강의 담당 교수자들이 직접 준비한 수업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앙카라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의 학사 교육 과정은 다음과 같다. ¹⁴⁾

12) 앙카라대학 한국어문학과 출신인 곱켄 튀르코즈 교수가 이후 에르지예스대학 한국어문학과를 성장시키고 주도하는 역할을 하고 곱켄 교수의 지도를 받은 박사 졸업생이 현재 이스탄불대학 한국어문학과 의 전임강사로 일하며 교수 요원을 준비 중이다.

13) 튀르키예 고등교육위원회의 볼로냐 프로세스 적용 관련 참조 <https://uluslararasilasma/bologna>

14) <https://www.ankara.edu.tr/programlar/2/446/1612-209/#lessons>

학년 및 학기	교과목	구분	학점
1학년 1학기	문법입문	필수	4
	한글	필수	4
	한국현대문화	선택	2
	음운론 입문	선택	2
	문형론 입문	선택	2
1학년 2학기	문법 기초	필수	4
	음성학 입문	필수	4
	한국전통문화	선택	2
	한국어 작문 입문	선택	2
	구문론 입문	선택	2
2학년 1학기	문법론 I	필수	4
	한국어 회화	필수	3
	문장	필수	4
	한자입문	선택	2
	기초언어능력개발 I	선택	2
2학년 2학기	문법론 II	필수	4
	어휘론	필수	4
	작문표현 기법	필수	3
	한자	선택	2
	기초언어능력개발 II	선택	2
3학년 1학기	한국 고전문학	필수	4
	작문표현	필수	4
	고급한국어 입문	필수	2
	한국역사	선택	2
	한국어 학습 정책들	선택	2
3학년 2학기	직업생활 적응	필수	1
	한국현대문학	필수	3
	한국지역연구	필수	2
	고급한국어	필수	2
	20세기 한국역사	선택	2
	번역론	선택	2
4학년 1학기	현대 한국사회	필수	3
	작문기법	필수	2
	한국시론	필수	4
	번역	선택	2
	한국어 교수법	선택	2

	한국어 교수 자료 준비	선택	2
4학년 2학기	졸업 논문	필수	2
	한국소설론	필수	4
	의미론 비교 연구	선택	2
	한국경제의 역사와 현재	선택	2
	구비론	선택	2
	연구방법론	필수	3

(2) 에르지예스대학 한국어문학과 수업 교과 과정

튀르키예 중부 지방에 위치한 에르지예스 대학 한국학과는 2002년 월드컵 이후 2003년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이미지와 함께 하티제 투르크즈를 필두로 신입생 유치를 시작했다. 이후 튀르키예인으로서 처음으로 한국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친 곡셀 투르크즈 교수가 2006년 에르지예스대학으로 부임하면서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하였다.

한국어교육을 전공한 곡셀 교수는 튀르키예 현지에서 가장 많은 한국 문학 작품을 번역한 대표적인 문학 번역가이기도 한데 2006년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작품 번역을 시작으로 ‘채식주의자’, ‘원미동 사람들’ 등 총 14권이상의 한국 문학 작품을 현지어로 번역했다. 에르지예스 한국학과는 이처럼 활발한 번역 활동과 함께 한국문학번역원과 연계해 독후감대회, 작가와의 만남 및 문학 번역워크숍을 거의 매년 개최하고 있다.

또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한중연의 씨앗형 사업을 2회 수행했으며 2019년에 “알타이 문화권을 역류하는 한국학의 새 물결: 튀르키예어권 인근 국가의 대학 연계를 통한 한국학 연구·교육 시스템 구축”이라는 주제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중핵사업 추진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튀르키예 및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학 연구의 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국제학술대회, 전문가특강, 출판사업 등 활발한 학술활동을 펼쳐가고 있으며 2020년에는 튀르키예

최초로 한국학연구소를 개소하여 본격적인 한국학 연구 기관으로 학문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2010년 이후 한국기업들이 본격적으로 튀르키예 시장으로 진출하면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현지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이 학과의 졸업생들 대부분이 한국회사나 관련 기관에 입사하는 등 높은 취업율을 보이는 상황이다. 이처럼 학과 출신들의 높은 취업율과 함께 2012년 부터는 기존 40명의 학과 주간반 정원에 더해 40명 정원의 야간반 까지 개설해 매년 80명이상 졸업생들이 배출되고 있다.

교수진은 현재 한국학과 학과장이자 부교수인 하티제 투르코즈 교수를 위시해 에르지예스 대학 동양어학부 학부장을 겸임하는 곡셀 투르코즈와 조교수 1명과 연구조교 3명이 있으며 한국인으로는 전임강사 1명, 객원교수 1명, 조교수 1명 등으로 튀르키예 한국학과에서 가장 많은 교수진이 포진되어 있다. 한국어 학습 교재는 연세대학 한국어교재와 곡셀교수의 문법 1과 2 교재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의 이화여대, 서강대 한국어 등의 부교재를 쓰고 있다. 한국문학 강의 교재는 하티제 투르코즈 교수의 ‘한국현대문학사’ 및 학과 교수진이 자체적으로 저술한 한국사, 한자와 한국어, 비즈니스 한국어, 한국문화와 한국어 등의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다음은 에르지예스 한국학과의 교과과정이다. 15)

학년 및 학기	교과목	구분	학점
1학년 1학기	한국어 문법 I	필수	4
	한국어 읽기 I	필수	4
	한국어 말하기 I	필수	2
	한국어 듣기 I	필수	2
	한국어 쓰기 I	필수	2
	한국문화 I	필수	2
	한국어 어휘 I	필수	2

15) <https://dbp.erciyes.edu.tr/Program/P3.aspx?Fak=112&lang=0&Pro=112091>

1학년 2학기	한국어 문법 II	필수	4
	한국어 읽기 II	필수	4
	한국어 말하기II	필수	2
	한국어 듣기 II	필수	2
	한국어 쓰기II	필수	2
	한국문화 II	필수	2
	한국어 어휘와 문장	필수	2
2학년 1학기	문법 III	필수	4
	독해 I	필수	2
	말하기 III	필수	4
	듣기III	필수	2
	작문I	필수	2
	한국역사I	선택	2
	컴퓨터 I	선택	2
2학년 2학기	문법 IV	필수	4
	독해 II	필수	2
	말하기 IV	필수	4
	듣기IV	필수	2
	진로계획	필수	1
	한국역사II	선택	2
	작문 II	선택	2
3학년 1학기	문법 V	필수	2
	논술 I	필수	2
	말하기 V	필수	2
	한국문학 I	필수	2
	직업 한국어 I	필수	2
	한국역사 III	필수	2
	어휘 이해와 한자 I	선택	2
문학번역기법 I	선택	2	
3학년 2학기	문법 VI	필수	2
	논술 II	필수	2
	말하기 VI	필수	2
	한국문학 II	필수	2
	직업 한국어 II	필수	2
	한국역사 IV	필수	2
	한국어교육실습I	선택	2
문학번역기법 II	선택	2	

	어휘 이해와 한자 II	선택	2
4학년 1학기	논술 III	필수	2
	번역 실습 I	필수	2
	비즈니스 한국어 I	필수	2
	한국문학 III	필수	2
	한자 텍스트 I	필수	2
	졸업논문 I	필수	2
	졸업논문 II	필수	2
	텍스트 연구 I	선택	2
	텍스트연구 II	선택	2
한국의 사상 구조 I	선택	2	
4학년 2학기	논술 IV	필수	2
	번역 실습 II	필수	2
	비즈니스 한국어 II	필수	2
	한국문학 IV	필수	2
	한자 텍스트 II	필수	2
	졸업논문 II	필수	2
	졸업논문 II	필수	2
	텍스트 연구 I	선택	2
	텍스트연구 II	선택	2
한국의 사상 구조 II	선택	2	

(3) 이스탄불대학 한국어문학과외의 교과과정

2016년 9월에 튀르키예의 대학으로서는 세 번째로 한국어문학과가 개설되었다. 튀르키예어문학과와 한국어문학과 학과장을 겸하고 있는 정교수 1인의 행정적 지원 아래 1명의 조교수와 4명의 전임 강사(박사학위 소지자 2, 박사과정 수료자 2) 등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학과 학생은 120여명의 학부생이 소속되어 있고 대학원 설립을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스탄불대학 한국어문학과외의 현황에 대해서는 4장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다음은 이스탄불대학 한국어문학과외의 교과 과정이다.

학년 및 학기	교과목	구분	학점
준비반 (가을학기과 봄학기 동일)	한국어 쓰기	월	매일 5시간, 주 25시간
	한국어 읽기	화	
	한국어 문법	수	
	한국어 말하기	목	
	한국어 듣기	금	
1학년 1학기	한국어 문법 I	필수	3
	한국어 읽기 I	필수	3
	한국어 말하기 I	필수	4
	한국어 듣기 I	필수	3
	한국어 쓰기 I	필수	2
	한국문화 I	필수	2
1학년 2학기	한국어 문법 II	필수	3
	한국어 읽기 II	필수	3
	한국어 말하기II	필수	4
	한국어 듣기 II	필수	3
	한국어 쓰기II	필수	2
	한국문화 II	필수	2
2학년 1학기	문법론 I	선택	2
	고전시가 입문	필수	2
	한국학개론	필수	2
	발표와 토론	선택	4
	한국현대시 입문	필수	2
	한자의 이해	선택	2
2학년 2학기	문법론 II	선택	2
	고전시가입문	필수	2
	발표와 토론	선택	4
	한국학개론	필수	2
	한국현대시 입문	필수	2
	한자의 이해	선택	2
3학년 1학기	한국고전문학사 I	필수	3
	한국역사학 I	필수	2
	스토리텔링과 커뮤니케이션I	필수	2
	한국현대문학사I	선택	2
	대조언어학	선택	2
	한국어학개론	필수	2
	시사한국어	선택	2

3학년 2학기	한국고전문학사 II	필수	2
	한국역사학 II	필수	2
	스토리텔링과 커뮤니케이션 II	필수	2
	한국현대문학사 II	선택	2
	한국어화용론	선택	2
	한국어교육론	선택	2
4학년 1학기	구비문학론 I	선택	2
	논문세미나 I	필수	2
	한국 근현대 정치·경제의 이해 I	선택	2
	통역론 I	필수	2
	번역론 I	필수	2
	한국어교육 과정과 교재론	선택	2
	한국문학과 콘텐츠 I	필수	4
	비교문학론	필수	2
4학년 2학기	한국의 국제관계	선택	2
	논문세미나 II	필수	2
	통역론 II	필수	4
	번역론 II	필수	2
	한국어교육실습	선택	2
	한국문학과 콘텐츠 II	선택	

IV. 이스탄불대학의 한국학현황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1,800만 인구의 이스탄불은 유럽 및 중동 지역의 최대 도시이자 예로부터 동서 간 물적·인적 교류의 중심지였으며, 지정학 그리고 지문화적 가치와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57여 개의 대학과 100만명 이상의 대학생 인구를 보유한 이스탄불은 튀르키예를 비롯한 유라시아지역의 학문과 교육의 요람으로서도 높은 위상을 지니고 있다. 500년 전통의 이스탄불대학은 총 20개의 단과대학과 17개의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고, 총 132개의 학부 프로그램과 488개의 석·박사 과정 등 총

620여개의 학위 과정이 설치되어 있다. 정규과정 등록 학생 수는 85,000명이며 여기에 원격통신 과정을 포함시키면 약 21만명의 재학생을 보유하고 있다. 5천여 명의 교직원과 만 2천여명의 행정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튀르키예 최대의 대학이다. 또한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오르한 파묵,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아지즈 산자르를 배출한 학문의 요람이며, 대통령과 각부 장관, 국회의원 등 수많은 정관계 유력인사들과 각계의 주요 리더들을 배출해왔다.

이스탄불대학 한국어문학과는 튀르키예 내에서 세 번째, 이스탄불에서는 첫 번째로 개설된 한국학 관련 정규 학과인데 그 설립 배경은 다음과 같다. 2012년 한.터 관계가 전략적동반자 관계로 격상되고 2013년 5월에 한.터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된 이후 양국 경제 관계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이스탄불과 인근 지역에서 실시된 대규모 국가적 인프라 건설사업에 한국의 기업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와 함께 이스탄불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인적자원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게 되면서 튀르키예 정부로부터 이스탄불대학에 한국학과 설치를 위한 제안을 하게 된 것이다.

보통 새로운 정규 학과 개설을 위해서는 설치와 운영관련 제반사항 마련을 위한 준비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지만 학과 개설 과정이 압축적으로 진행돼 개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지 불과 7-8개월 만인 2016년 9월에 문과대학 동양어학부 소속으로 학과가 설치되었다. 초기 학과의 개설에 필요한 행정 작업과 토대구축은 이스탄불대학 역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정은경이 대학의 요청으로 교과과정 설계를 비롯해 교원 확보 등의 업무를 맡아서 추진했으며 학과 개설 이후 1년 반 안에 총 5명의 한국인 전임교원으로 학과 교수진을 구성하게 되었다.

현재 교과 과정상 다른 두 대학 한국학과와의 가장 큰 차이는 2018년 가을학기부터 기존 4년제 과정에 언어 집중과정인 준비반 1년 과정을 도입해 총 5년제로 실시된다는 점이다.¹⁶⁾ 주지하다시피 4년제 교과 과정으로는

16) 이스탄불대학 당국은 문과대학의 외국어전공 학과들을 대상으로 학문적 심화의

한국학의 제 분야를 아우르기에 어려움이 많다. 이스탄불 한국어학과도 개설 초기에 한국어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 곧바로 심화된 내용의 한국학 강의를 진행할 수 없었으므로 2년 동안은 대부분의 학점을 한국어 기능 교육에 배정했다. 그 결과로 한국학 관련 교과는 ‘한국문화’, ‘한국역사’, ‘한국학’, ‘한국문학입문’, ‘한국문학사’, ‘어휘론과 한자’, ‘구비문학과 미디어’, ‘한국어교육’, ‘한국정치와 경제’ 등 9개 강좌에 불과했다. (강좌 당 2학기 배정). 충분한 시수를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입문단계에서 심화 단계로 나아가는 단계별 강좌의 설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준비반의 도입을 통해 기존에 한국어 기능 교육에 안배되어 있던 많은 시간을 심화 한국학 교과 과정으로 전환 배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준비반 과정 1년 동안 한국어의 기능 교육만을 중심으로 매주 25시간씩, 그리고 위의 표에서 보듯이 1학년 과정도 한국문화 수업을 제외한 전체 수업이 한국어 의사소통교육에 집중되어 있다. 이로써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1학년 말까지 토픽 4-5급에 해당하는 한국어 기능 교육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학 교육의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기존 4년제 교과과정을 5년제로 확대 개편하고 한국어 의사소통 교육에 편중되었던 교과 과정을 일신하여 제반 한국학 영역을 두루 아우르는 체계적 교과과정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나의 학술 기관이 학문적 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술 활동이 일정한 지향성과 함께 정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항상성이 외부로부터 인지될 수 있어야 하는데 학비가 전액 무료인 이스탄불대학교의 경우는 출판, 행사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스탄불대학 한국학과에서는 “중앙유라시아 지역의 한국학 허브 구축”을 목표로 2018-2021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부터 씨앗형사업(초기)을 수행했으며 2022년 부터는 “한국학 후속세대 양성체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2018년부터 준비반 과정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5년간 씨앗형사업(발전)을 승인 받아 추진 중이다.

학과 개설 이후에 현재까지 한국학 진흥사업단의 지원으로 한국학 기반을 구축하여 왔던 바 사업 수행이 완료된 씨앗형 사업(초기) 및 현재 진행 중인 사업(발전)의 내용과 성과를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지난 사업 기간 동안 학과의 사업팀¹⁷⁾은 한국어 문법, 한국역사입문, 한국고전문학사, 현대문학사,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학개론, 중앙유라시아 한국학의 현황과 비전 등 총 9권의 현지 맞춤형 교재 및 한국학 저서들을 출판했으며 10편의 논문을 등재지에 게재했다. 또한 한국어로 교환학생이나 연수를 간 학생들과 사업을 보조하는 학생 조교 등 총 26명의 학과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통하여 본격적인 한국학 교육기관으로서 기반을 갖추는 한편 학생들의 성취의욕을 고취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그리고 국제 교류 활동의 연계를 통해 한국학 연구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하여 총 4회의 연례 국제학술대회와 한국학 전문가 초청 워크숍 4회, 총 3회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국제학술 올림피아드와 1회의 글로벌 대학생 문화 UCC 경연대회를 개최하였다. 연례적으로 개최된 ‘중앙유라시아 한국학 국제학술대회’는 매년 10월 한글날 주간을 기하여 ‘한국 문화 주간’ 행사를 통해 중앙유라시아 지역의 한국학 전문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한국학 연구자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으는 학술 교류와 국제 협력의 장이 됨은 물론, 다양한 지역 한국 학자들의 연구 발표를 통해 역내 한국학의 자생기반 구축에 대한 논의의 장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중앙유라시아 한국학 학생올림피아드’를 통해 한국학과 전공생들을 위한 학술 경쟁 부문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내 대학생들의 한국학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 실질적인 성취 동기를 제공하여 한국학 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의의가 있었다. 아울러 해당 프로그램의 연계 행사로 한국학과 학생

17) 사업팀 구성원은 2023년 현재 학과 교수진 및 연구조교 등 전원(6명)이 참여하고 있다.

들이 주체가 되어 ‘한국문화 공연 행사’ 및 한식 소개행사를 실시해 다양한 한국 문화를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또한 매년 봄에 이스탄불대학 및 이스탄불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학 전문가 초청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 주제는 각각 1회차: ‘탈라스 전투의 역사적 배경과 고구려 출신 고선지(지배선 교수, 연세대)’, 2회차: ‘한국 인문학의 새 지평: 설화와 자기서사, 그리고 문학치료 (신홍훈 교수, 건국대)’, 3회차: ‘새롭게 만나보는 북한’(박종철 교수, 경상대/ 김종근 교수, 건국대), 4회차(온라인 세미나): ‘풍속화 속 옛 조선의 길을 걷다’ (손영은 교수, 군산대), ‘상징으로 한국 설화 읽기’ (조홍윤, 세한대)로 그동안 실시된 워크숍은 이스탄불의 많은 대학생들에게 현지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학의 새로운 주제들을 소개함으로써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그리고 이스탄불대학 한국학과 사업팀은 해당 사업을 통해 2021년에 기관 학술지인『중앙유라시아 한국학』을 창간하여 학과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중앙유라시아 한국학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발표된 연구 성과와 한국학 관련 일반 연구를 수렴한 후 심사 과정을 통해 선발한 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유라시아 중앙 지역에 연고를 둔 영향력 있는 한국학 관련 학술지의 존재가 매우 아쉬운 상황에서 이는 해당 지역 연구자 및 대학원 과정 연구자들의 성과 공유를 돕고 학문적 열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자산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

V. 튀르키예 한국학의 과제와 발전방안을 위한 제언

1) 한국학 교과과정의 개발

커리큘럼을 정해진 교육의 목표에 맞춰서 교육의 내용과 범위 및 방법을 설정하고 체계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때 교육의 목표와 방향은 곧 그것이

추구하는 정체성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즉, 한국학에 대한 인식은 한국학 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정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되는 것이다. 한국학과의 정규 전공과정으로 개설된 세 대학의 한국학 커리큘럼 범위를 살펴보면 한국어 과정이 전반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인문학과 사회과학은 입문 형태로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심화된 한국학 관련 과목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세 대학 모두 한국과 튀르키예 간의 정치, 경제 및 사회적 영향의 여파로 학과가 설립된 것이 그 이유로 보여진다. 이는 한국학에 대해 인문·사회과학의 차원이 아닌 지역학의 한 분야로 인식하고 있는 현지의 전반적인 이해가 반영된 결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기업 취업이나 한국유학 등을 위해 언어 숙달도는 현실적으로 가장 절실한 도구이고 학과의 존폐여부를 결정하는 요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세 대학 학과는 예외 없이 모든 교수자들이 자신의 한국학 전공분야 강의와 함께 한국어 교육에도 참여하고 있고 이 두 분야를 다 잘 수행해야 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한국학이 수행되는 해당 지역의 상황과 형편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하더라도 그것이 한국학 과정의 전제조건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학이 튀르키예 내에서 자생력을 갖춘 학문의 한 분야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과과정에 심화된 한국학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현재 세 대학은 학과가 처한 각각의 조건과 환경 속에서 개별적으로 교과과정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향후 각 대학은 서로의 강점은 공유하고 약점은 보완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보이고 이를 위해 한국 학과 커리큘럼 운영자들 간의 긴밀한 협력과 정기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2) 교수인력 확보 방안

현재 해외에서 실시되는 한국학의 강의 운영과 연구 인프라를 위한 교수인력 수급 환경은 다른 분야들 보다 그 취약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해외의 대학들이 현지에서 한국학 강의와 연구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교수자를 찾기 힘들고 안정적인 근무 조건을 제공할 만한 예산이나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 일 수도 있다.

튀르키예의 경우 한국학 분야에서 박사 학위나 연구 실적 등 교수요원 채용을 위한 자격요건을 갖춘 현지 인력들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 이스탄불 대학 처럼 교수 요원 전원을 자격과 경험이 있는 한국인으로 확충하는 방법이 최선일 수도 있다. 그러나 튀르키예 노동법상 외국인인 법적으로 정년 트랙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모든 외국인 교수들은 계약직으로 매년 대학과 계약을 갱신 혹은 연장해야 한다. 물론 한번 임용이 된 외국인 교수를 특별한 이유 없이 대학에서 해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계약직이라는 불안감과 한국에 비해 낮은 대학 임금 및 최근 달러 환율의 불안정으로 기인된 심각한 인플레이션 문제는 한국인 교수자가 취업을 위해 튀르키예행을 결심하는데 있어 상당한 부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학을 제대로 가르칠 교수자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국학의 성장 모멘텀을 건설한 발전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정부나 연구기관들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심과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가령 '한국학 시니어 네트워크' 등을 구축해 관심있는 은퇴 한국학 학자들을 객원 교수로 파견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튀르키예는 무비자 3개월 체류가 가능하고 대학 초청장이 있으면 6개월 이상 객원교수 비자도 받을 수 있는 환경이므로 한학기나 두학기 정도 현지에 체류하면서 한국학 강의를 할 경우 은퇴 교수들의 평생 쌓은 학문적 역량과 경험은 한국학의 불모지에 엄청난 자산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유럽 전 지역과 중동 및 중앙아시아에 대한 최적의 접근성 및 한국과 유사한 언어 체계와 문화적 자산을 가진 튀르키예는 경제적

으로 크게 구애를 받지 않는 은퇴 학자들에게 연구 대상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지역이라 여겨진다.

3) 재 튀르키예 한국 유관 기관들 및 기업들과의 협력

튀르키예 내에서 한국학을 전공 과정으로 보유한 학과들은 대체적으로 학과 담당 교수들의 열의와 한국 정부 기관의 후원을 통해 한국학을 성장, 발전시켜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학과들은 개설 이후 교육 및 연구 인프라의 구축이나 한국학 활동에 있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단기간에 상당한 수준의 학술 활동성과를 이루어내었다. 이러한 성과의 한 축으로 한국 연구재단(한중연)의 학술 사업 지원, KF의 교수 파견 및 한국학 자료 지원, 한국문학번역원의 번역 워크숍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대사관, 영사관, 문화원 등 한국 정부 기관들의 지지와 관심은 대학 내 한국학과들이 대학과의 행정이나 여타 업무를 진행할 때 상당한 힘을 실어주는 요소로 작용된다. 그 일례로 이스탄불대학 한국학과는 2022년 11월 주 이스탄불 총영사관의 지원으로 문과대 내에 한국학 연구 및 한국 문화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코리아 코너'(한국홍보관)를 설치하였다. 본래 이스탄불 시청에 배정되어 있던 한국문화 체험 공간을 문과대 내로 이전하는 것에 대학이 승인함으로써 한국 학과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용한 하계 된 것인데 이로써 한국어문학과는 현재 이스탄불대학 문과대학 내 22개가 넘는 외국어 학과 중 유일하게 자체 홍보관을 가진 학과가 되었다. 이는 공관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일로 대학 내 한국학과의 입지를 공고히 해 주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같은 해 이스탄불대학 한국학과와 문화동아리가 한국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지원으로 한국문화 공연 및 전통 놀이 체험 행사를 개최하였다. 교원들과 학생들이 상당 기간 준비한 부채춤, 소고춤, 탈춤 등 전통 공연과

합창, K-Pop 댄스 등 현대 문화를 아우르는 이 공연은 다양한 국제 한류 커뮤니티 가운데 커뮤니티 결성 지원 부분에서 최우수 커뮤니티로 선정되어 대학 내에 학과 학생들의 재능과 저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학생들에게는 학과에 대한 자부심과 소속감을 이끌어 낸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포스코는 매년 한국학과가 설치된 대학들을 위주로 장학금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또한 대학 내 한국학과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로 작용되고 있다. 현지에서 한국학과는 공공외교와 한국 기업들을 위한 우수한 인재 양성의 모판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때문에 한국 유관기관들과 기업 그리고 한국학과의 긴밀한 협력은 향후에도 현지 한국학과의 건설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것이다.

4) 한국학 교수자 재교육

한국학이 해외 현지의 토양에서 하나의 학문 분야로 건설히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특수성 보다는 학문적 보편성에 기반한 현지화를 목표로 방향 설정이 필요할 것이라 여겨진다. 튀르키예 현지를 대표하는 선두 대학 세곳에서 한국학이 빠르게 정착한 가장 큰 이유도 한.터 양국의 언어와 문화에 능숙한 한국 및 튀르키예 학자들이 중추적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이라 보여진다.

특히 현지에서 한국학이나 관련 분야에서 학위를 마친 현지인 혹은 한국인 연구자들이 해당 지역의 학문제도를 잘 알고 인적 네트워크 활용도 가능하다는 점은 새로운 도전들에 맞서 기반을 닦아야 하는 학과 초기 설계 단계에서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비교연구 및 한국학의 향상성 유지라는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자질과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 한국학을 배운 연구자들은 한국인이 국학의 토양에서 쌓은 경험적 지식의 양이나 질적인 차원에 도달하기까지 연구자 개인의

상당한 시간과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는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한국학에 대한 낮은 인식과 학문적 차원으로 발전시킬 제도적 장치가 미비되어 있는 지역에서 한국학 학문 후속세대 양성은 요원한 부분이다. 인근 아제르바이잔의 경우 바쿠 국립대학 한국학과에는 한국역사, 한국지리, 한국문학, 한국문화, 한국외교, 한국 법체계, 한국정치, 한국경제, 한국문화 예술 등의 한국학 과목들이 설치되어 있어서 외형상으로는 제대로 된 한국학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한국학과 전혀 관련 없는 현직인 교수가 법학과나 정치학과 소속이라는 이유로 한국의 법체계나 정치를 가르치고 있다.¹⁸⁾ 심지어 한국학 전공 과목과 관련된 아제르바이잔어 교재나 서적도 없는 형편이라 이들이 올바른 내용을 가르칠 수 있을지에 대해 상당한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일 수 있으나 해외에서 한국학 교수요원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주목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자들의 전문성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학회와 세미나 등 일회성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학문적 자기개발이라는 관점에 있어서 시간적으로 충분하지 않다. 바라기는 해외 대학 강단에서 가르치고 있는 한국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희망자들에게 한해 여름이나 겨울방학 기간동안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한국학 재교육’ 과정이 도입되기를 희망한다.

예를들어 외국인이나 재외 국민 석.박사 학생 대상으로 한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차세대 한국학자 초청’ 사업과 유사한 한국학 연수프로그램들을 통해 해외 한국학 교수자들의 학문 역량을 강화시키는 장치는 한국학이 현지에서 뿌리내리고 결실을 맺도록 자양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으로

18) 바하르 알리에바, 「아제르바이잔에서의 한국학 현황과 과제」, 『제6회 중앙유라시아 한국학 국제학술대회 발표집』, 이스탄불대학, 2023, 111-122쪽

여겨진다.

Ⅶ. 나오는 말

2016년까지 튀르키예 내 한국학 관련 학과는 앙카라대학교와 에르지에스대에 설치된 2개의 한국어문학과가 전부였다. 최초로 한국어문학과가 설치된 앙카라대의 경우는 행정 수도인 앙카라에 위치한 명문대학으로서 튀르키예 내 한국학의 중추로 역할해 왔으며, 에르지에스대 한국어문학과는 후발주자로서 앙카라대학교와 함께 한국학의 양대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중에 이스탄불에 위치한 이스탄불대학교에 한국어문학과가 개설되었다. 이스탄불은 고대로부터 유라시아의 중심 관문이었으며, 현재에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를 연결하는 최다 직항로를 보유한 도시다.

세계적 범위의 접근성을 지닌 튀르키예가 한국학의 거점이 된다면 한국학은 극동의 한국과 유라시아의 중심인 이 지역을 통해 든든한 교류 기반을 갖게 될 것이다. 특히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등 국가들은 투르크계 민족국가의 성격을 지니며 투르크어 사용을 비롯해 튀르키예와의 역사적·문화적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1991년 구소련의 붕괴 당시에 있었던 해당 국가들과 튀르키예의 연합운동, 즉 '범투르크주의 운동'의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이다.¹⁹⁾ 이들 국가들은 한국학 신흥지역으로서 다수의 대학들에 한국학 관련학과가 설치되고 있으며 한국학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튀르키예 한국 학과들을 중심으로 구축되는 한국학 거점은 한국학 신흥국

19) 정은경, 「범투르크주의에 관한 역사적 고찰」, 경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0, 50-56쪽

가들을 연계하는 강력한 네트워크의 마련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인근의 서유럽, 동 유럽, 발칸,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지역 국가들과의 연계망 또한 촘촘하게 연결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튀르키예 한국학이 유라시아 중앙 지역의 한국학 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거대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며 한국과 현지 학자들의 끊임없는 성찰과 비전 제시를 통해 실현 가능한 사안일 것이다.

참고문헌

- 곽셀 튀르키주, 「튀르키예에서 한국어 교육 및 한국어 학습자의 유형 변화」, 『Journal of Korean Culture』 26, 2014, 63- 88쪽
- 바하르 알리에바, 「아제르바이잔에서의 한국학 현황과 과제」, 『제6회 중앙유라시아 한국학 국제학술대회 발표집』, 이스탄불대학, 2023, 111-122쪽
- 유정숙, Hatice Koroglu Turkozu, 「튀르키예 대학에서의 한국문학 교육 현황 및 교재 분석 - 튀르키예 에르지예스 대학교 <한국어문학과>를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 41, 2018, 63-92쪽
- 임지영, 「튀르키예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교육 연구 동향 분석」, 『학습자중심 교과교육연구』 21, 2021, 113-129
- 조은숙, 「한국과 튀르키예에서의 한국학 관련 연구 동향」, 『중앙 유라시아 지역 한국학의 현황과 비전』 정은경, 손영은 Ed, Demavend, Istanbul, 2018, 45-63쪽
- 조홍윤, 「튀르키예 국립 이스탄불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수업 사례를 통한고전문학 교육 방안 연구」, 『한국고전연구학회』 48, 韓國古典研究, 2020, 243-272쪽
- 정은경, 「범투르크주의에 관한 역사적 고찰」, 경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0, 1-79쪽

인터넷 자료

- <https://uluslararasi.yok.gov.tr/uluslararasilasma/bologna>
- <https://e-yaygin.meb.gov.tr/pagePrograms.aspx>
- <https://dbp.erciyes.edu.tr/Program/P3.aspx?Fak=112&dlang=0&Pro=112091>
- <https://www.ankara.edu.tr/programlar/2/446/1612-209/#lessons>
- <https://www.mfa.gov.tr/turkiye-guney-kore-siyasi-iliskileri.tr.mfa/2023/11/27>
- <https://dergipark.org.tr/tr/search/33?q=Kore+§ion=articles/2023/11/20>

Abstract

THE CURRENT STATE AND CHALLENGES OF KOREAN
STUDIES IN TÜRKIYE - A FOCUS ON ISTANBUL UNIVERSITY

JEONG EUNKYUNG (JEONG, EUN KYUNG)²⁰⁾

With the rapid expansion of the Korean Wave, interest in Korea is on the rise across various age groups in Türkiye. This phenomenon has resonated significantly with the Turkish population, who already held a basic sense of friendship towards Korea. Additionally, the collaboration between the two nations has strengthened due to large-scale national construction projects undertaken by Korean companies, elevating Korea's national status. Despite the increasing demand for Korean studies, the research and understanding of trends in this field have not kept pace with the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This study aims to address gap by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departments at three Türkiye universities, specifically exploring the Korean studies department at Istanbul University with the objective of identifying the direction of the development for Korean studies within Türkiye.

To reinforce Korean studies as a self-sustaining academic field in Türkiye,

20)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of Istanbul University, Türkiye

four recommendations are proposed in this paper.

1. Curriculum Expansion:

The three universities (Ankara University, Erciyes University, Istanbul University) currently operate individual curricula based on departmental conditions. However, sustained efforts are needed to expand the Korean studies program within these curricula and thus, establishing a platform for close cooperation and regular discussions among curriculum operators is essential.

2. Support for Academic Growth:

Securing proficient professors for Korean studies is challenging. To address this, systematic and sustained support from the Korean government and research institutes is necessary to translate the current growth momentum into substantive development.

3. Local Collaboration for Talent Cultivation:

Given the importance of Korean studies in local public diplomacy and talent cultivation for Korean companies, close collaboration between government-related organizations, corporations, and Korean studies is vital for future growth.

4. Addressing Expertise Gaps Overseas:

The issue of the lack of expertise among Korean studies professors overseas needs continuous attention, and corresponding solutions should be pursued. While there are programs such as conferences and seminars, they are

significantly insufficient in terms of time and content from an educational perspective. To address this challenge, a potential solution involves implementing focused and systematic programs, such as 'Korean Studies Re-education,' during the summer vacation period, tailored specifically for Korean studies professors teaching at foreign universities.

Türkiye has immense potential to emerge as a central hub for Korean studies in the Eurasian region. This can be realized through continuous reflection and the shared vision of both Korean and local scholars, paving the way for ongoing growth and cooperation in the field of Korean studies within Türkiye.

Key Words : Türkiye, Korean studies,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Ankara University, Erciyes University, Istanbul University